

[전체공지]

교황님 기도 지향
 <보편 지향> 인신매매, 강제 매춘, 폭력의 희생자들이 너그러운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.

※ 바오로딸 도서선교

- 일시: 2 월 9 일(게인즈빌), 10 일(잭슨빌 본당) 미사 전후
- 장소: 카페테리아(게인즈빌), 본당 정문앞 (잭슨빌)
- 바오로딸 수녀들께서 책/CD/DVD 를 전시/판매하오니 많은 관심과 구입바랍니다.

※ 성모회원 대상 영상피정: <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>

- 일시 및 장소: 2 월 10 일 오후 1~3 시, 잭슨빌 본당
- 주제: 하느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체험하여 기쁨과 행복을 되찾고, 성모회원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살며 이 기쁜 체험을 이웃에게도 신명나게 전하게 한다.

[잭슨빌]

- 오늘 방문하신 데레시아 수녀님 환영합니다.
- 신부님 한국방문 (2/12~3/7) 동안 미사집전은 김치신부님이 해주시겠습니다. 수요일미사는 없습니다.
- 성모동산에 심을 화초나 꽃나무 가지고 오시면 다음주일 미사 후 심도록 하겠습니다.
- 동유럽 성지순례 준비중입니다. 스케줄이 확정되는데로 공지하겠습니다.

[게인즈빌]

- 오늘 미사후 바오로딸 도서선교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.
- 다음주 미사(2/16)는 원래대로 진행되며, 로렌스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
- 2 월 23 일 토요일 (1~4pm) 성당 야유회 예정되어 있습니다. 미사는 야유회 후에 영어권 미사 (5 시 30 분)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.

<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>

공동체	주일봉헌금	교 무 금	건축헌금	기 타	총 계
게인즈빌	\$187	\$1,140	-	-	\$1,327
잭슨빌	\$321	\$600	-	-	\$921



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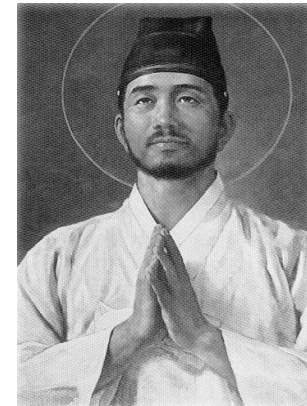
St.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

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(904) 525-4809

성당 (904) 573-1833

잭슨빌 성당 St.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, 8051 Rampart Rd. Jacksonville, FL 32244

게인즈빌공동체 St. Patrick Parish, 550 NE 16th Ave. Gainesville, FL 32601



聖 최경환(崔京煥) 프란치스코(1805-1839)

잭슨빌 한인 성당		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	
주일 미사	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	특전 미사	토요일 오후 7 시
평일 미사	매주 수요일 오후 8 시,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	평일 미사	둘째,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
성령 기도	매주 금요일 오후 8 시	성령 기도	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
성프란치스코 기도회	매주 (목) 오전 11 시	레지오	-
성시간	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	주일학교	매주 토요일 미사 후
예비자 교리	매주 주일 미사 후	예비자 교리	매주 토요일 미사 후
사목회의	첫째 주 주일미사후	사목회의	첫째 주 특전 미사 후
사목회장	송재민 하상바오로 (904) 226-7191	사목회장	천창준 레오 (860) 906-6567

www.stfccm.org

https://www.facebook.com/St.FrancisChoe

오늘의 묵상

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제자, 곧 시몬 베드로, 그리고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활 시기의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였으며,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 교회에서도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이면서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과 소명이기도 합니다.

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군중을 가르치신 다음,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. 깊은 물은 언제고 위험합니다. 갑자기 풍량이 일 수도 있고, 사고가 났을 때 멀쩡히 돌아올 수 있는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. 결국 사람을 낚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, 복음을 선포하고자 위험을 무릅쓸 각오입니다.

갈릴래아 호수는 아침나절에는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없고 밤에 그물질을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, 그 결과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. 복음 선포를 비롯한 하느님의 일은, 사람이 쌓아 온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,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

마지막으로,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, 분열될 수 없는 교회의 특성을 보여 줍니다. 교회는 찢어져서 여러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디 하나로써 다양성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됨을 추구해야 합니다.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개별적인 부르심이면서 하나의 공통된 응답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.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(이성근 사바 신부)

< 8. 찬미하여라 >





연중 제 5 주일

[제 1 독서] 이사야서 6.1-2 7.3-8

<제가 있지 않습니까? 저를 보내십시오.>

[화답송] 시편 138(137). 1 과 2 2 7 12 과 3.4-5.7 8-8 (◎1 2)

◎주님,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.

[제 2 독서] 코린토 1 서 15. 1-11

<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.>

[복음환호송]

◎알렐루야

◎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를 따라오너라.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.

◎알렐루야.

[복음] 루카 5,1-11

<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.>

<전례 봉사자>

공동체		해 설	제 1 독서	제 2 독서	봉 헌
이 번 주	게인즈빌 (2/9)	신미영 미카엘라	황현철 라우렌시오	황승민 이나시오	
	잭슨빌 (2/10)	서정원 헬레나	렉시 베로니카	최차숙 마리아	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
다 음 주	게인즈빌 (2/16)	최건화 안젤라	성충현 베드로	남궁은미 루치아	
	잭슨빌 (2/17)	윤미임 데레사	김현희 아네스	송재민 하상 바오로	이상미 미리암 서정원 헬레나

<미 사 성 가>

공동체	입 당	봉 헌	성 체	파 건
게인즈빌	94	576	522	75
잭슨빌	46	332	506	15